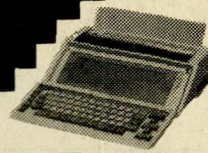


문서작성의 새로운 세계 — 라이워드 35

- 초미니 휴대용 워드프로세서
- 40자×10행의 대형 액정화면
- 고덕, 영조 등 다양한 글자체
- 초보자도 쉽게 사용
- 12개국어 사용가능
- 자체 충전기능 내장
- 주소록 관리기능 내장



라이카

(02)

756-3211, 778-3211, 779-3211, 704-3211

3322, 5522 • FAX 671-4162 • 광고국 (02) 672-1031~3 • 구독신청·배달사고 (02) 672-1301~2 • 월 4,000원/1부 200원

장교 늘리고 정년 연장

군 인사개편안 여성에 사관학교·ROTC 개방

국방부는 군 계급구조를 고쳐 장교 구성비율을 현재의 10%에서 14~15%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장교 가운데 영관급 구성비율을 현재 28%에서 35%선으로 높이는 한편 대령으로의 진급률을 현재 33%에서 40~45%로 상향 조정해 군의 직업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학군무관후보생(ROTC)과 사관학교를 여성에 개방할

방침이다.

〈해설 14면〉

국방부는 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방 인사정책 장기발전안'을 마련해 오는 2000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군은 이제까지 병력 중심의 노동집약적 전력 구조에서 무기 중심의 기술집약적 전력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의 피라미드형 장교 인력구조를 향아리형으로 바꾸고 지난 89년 1차 연장(평균 3년)된 군 정년을 다시 늘린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 보수 수준을 높이고 '내집마련 제도' 도입, 자녀 대학학비 지원, 취업 보장제 및 직업교육 강화 등 종합적 복지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관학교·학군·학사 출신 장교들의 군번을 통할 부여하고 진급률과 보직상의 균형을 잡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규 사관학교 출신은 소수를 선발해 전원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고 학군·학사 장교후보생의 장학금과 복무기간을 현실화하게 된

다. 제3사관학교는 장기적으로 폐지하되, 당분간은 선발인원을 점차 줄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여성인력을 군에 활용하기 위해 올해부터 여대생 ROTC를 뽑는 한편 3군사관학교를 여성에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야전형과 정책형의 특기 분류제도를 도입, 야전지휘관을 거쳐야만 진급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군 인사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인사자료 전산화와 함께 지난해 도입된 진급 3심제를 보완·발전시키는 한편 장기복무장교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장려해 학위소지율을 지난해 6%에서 2000년에는 18%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